



FTSE 지수 정기변경

1. FTSE 지수 정기변경

- FTSE 지수 리밸런싱이 12/16(금)에 진행. 인덱스 효과는 리밸런싱 주간에 유의적이었던 경향.
- 이번 변경에서 종목 편출입은 성일하이텍의 스몰캡 편입이 유일.
- 단독 편입 측면도 부각될 수 있지만, IPO 종목의 편입시기가 상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인덱스 효과에 대한 과신은 경계 필요.

12월 FTSE 정기변경 예상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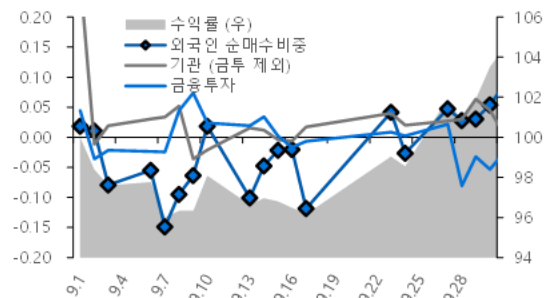
| Code | 종목 | 순매수 예상 | 거래대금 대비 | 시총대비 |
|---------|-------|--------|---------|------|
| A365340 | 성일하이텍 | 92 | 0.52 | 0.70 |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SK텔레콤의 비중 축소

- SK텔레콤은 높은 외국인 지분율로 4차 편입비중 축소. 주간 순매도금액 기준 리밸런싱 금액은 -223억원 수준.
- 21.9월 1차 비중축소 당시 리밸런싱 주간 외국인 순매도금액은 -671억원. 22.6월 2차 비중축소는 -762억원을 기록.
- 카운터 파티 수급의 부재, MSCI 지수 이벤트 종료 후 수급공백이 FTSE 지수충격을 높이는 배경. 다만, 이번 변경 후 당분간 패시브 이슈는 종료.

21.9월 FTSE 비중축소 당시 리밸런싱 주간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671억원을 기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FTSE 지수 정기변경

12월 FTSE 지수 정기변경의 리밸런싱은 12/16(금)에 진행된다. 동 지수는 MSCI 지수 대비 추종자금 AUM이 낮지만, 특히 리밸런싱 주간에 인덱스 효과가 양호했던 경향을 보였다.

이번 정기변경에서 종목 편출입은 성일하이텍의 스몰캡 편입 뿐이다. 12월 지수변경은 IPO 종목 등을 반영하는 light 리밸런싱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편출입이나 승격/강등 종목 수는 제한적인 편이다.

단독 편입 측면에서 매수 수요가 유입될 소지도 있지만, 무분별한 인덱스 효과의 과신은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IPO 종목의 편입 시기는 대체로 상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가 변동성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HK이노엔은 21.12월 KOSDAQ150 편입 직후 FTSE 지수에 편입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FTSE 리밸런싱 전주에 상승했지만, 리밸런싱 주간 인덱스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던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1] 12월 FTSE 정기변경 예상 수급

| 구분 | Code | 종목 | 평균 거래대금 | 시가총액 | 순매수 예상 | 거래대금 대비 | 시총대비 | 1M 수익률 | 3M 수익률 |
|--------|---------|-------|------------|--------|--------|------------|------|--------|--------|
| 스몰캡 편입 | A365340 | 성일하이텍 | 178 | 13,266 | 92 | 0.52 | 0.70 | -15.8 | -26.5 |

2. SK텔레콤의 비중축소

SK텔레콤은 높은 외국인 지분율로 편입비중 축소가 진행된다. 21.9월, 22.6월, 22.9월에 이은 4차 비중축소이다. 카운티 파티에 상채된 수급을 감안한 주간 리밸런싱 금액은 -223억원 순매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전 Case에서 패시브 매도충격이 다소 높았던 점은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리밸런싱 주간 외국인 순매도금액은 21.9월 1차 비중축소 당시 -671억원, 22.6월 2차 비중축소에서는 -762억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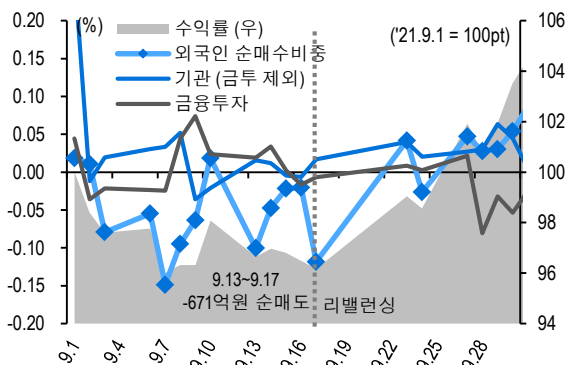
[표2] SK 텔레콤 FTSE 비중축소 예상

| 구분 | Code | 종목 | 평균 거래대금 | 시가총액 | 순매수 예상 | 거래대금 대비 | 시총대비 | 1M 수익률 | 3M 수익률 |
|------|---------|--------|------------|---------|--------|------------|-------|--------|--------|
| 비중축소 | A017670 | SK 텔레콤 | 238 | 109,198 | -223 | -0.94 | -0.20 | -1.2 | -3.9 |

MSCI 지수 편출 리스크가 함께 반영된 Case도 존재했지만, 이보다는 MSCI 지수 이벤트 종료 후 수급 둔화 국면에서 선반영 수요에 대한 카운터 파티 수급이 부재했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생각된다.

다만, FTSE 리밸런싱 종료 후에는 외국인 순매도는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고, 당분간 외국인 지분을 관련 패시브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등 매수관점의 투자자라면 FTSE 리밸런싱 종료 시점에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차트1] 21.9월 FTSE 비중축소 당시 리밸런싱 주간 외국인 순매도금액은 -671억원을 기록.



[차트2] 22.6월 2차 비중축소 시 -762억원을 기록. 카운터 파티의 이벤트 수요가 유입되지 않은 점도 작용.

